

### '임영웅' 잡아라

가수 임영웅이 29일 약 3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각 방송사가 '임영웅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방송계에 따르면 SBS는 26일 첫 방송 하는 신규 여행 예능 '섬마을 총각'에 임영웅을 캐스팅했다. 임영웅 데뷔 후 첫 예능 고정 출연자이다. 총 4부로 구성된 방송은 임영웅과 과학 유튜버 '웨도',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와 배우 이이경 4인방의 힐링 여행을 다룬다. KBS 2TV 음악 예능 '불후의 명곡'은 30일과 다음 달 6일 2주에 걸쳐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을 편성했다. 임영웅은 2020년 5월 '송해 가요제 특집'에 출연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단독 특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영웅 특집 1부에는 이적·노브래인·전종혁 등이, 2부에는 린이·김·최·유·라·조·째즈 등이 출연해 각각의 색깔로 임영웅의 노래를 부른다. 임영웅은 7일 JTBC 스포츠 예능 '몽쳐야 찬다' 출연을 확정하기도 했다. 실제 'KA리그'라는 아마추어 축구 리그에서 선수로 활약 중인 그는 지난해 '몽찬 3' 출연 당시 안정환 감독의 '어쩌다 뉴엔저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쳐 4:0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몽찬 4' 출연으로 약 1년 만에 임영웅과 안정환의 리벤지 매치가 예고됐다. 방송가에서는 이처럼 각종 예능에 게스트로 섭외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프로그램 기획, 특집 편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영웅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 폭넓은 세대의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임영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의 경우 '명곡판정단' 신청에 1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났다. '불후의 명곡'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따르면 신청이 시작된 8일부터 14일 자정 마감 전까지 6시간 동안 접수된 신청 글이 9000여 개에 달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올 하반기에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대형 공연들이 잇따라 펼쳐진다. 태양의서커스 '쿠자(KOOZA·왼쪽)'와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해외 뮤지션의 공연 등 다양한 매력의 공연들이 국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마스터 인터내셔널

## 대형 내한 공연 러시... 풍성한 가을 무대

**다시 온 태양의서커스 쿠자**  
고난도 퍼포먼스 마법의 초대  
부산 21일~9월·서울 10~12월

올 하반기 관객의 눈과 귀를 호강시킬 대형 공연이 잇달아 내한한다. 압도적인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태양의서커스 '쿠자(KOOZA)'를 비롯해 불후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해외 뮤지션의 공연까지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의 공연들이 국내 관객의 마음을 흠뻑 예정이다.

#### 압도적인 스케일, 숨 막히는 퍼포먼스 쿠자

200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초연한 이래 전 세계 약 800만 명이 관람한 대표적인 아트 서커스 쿠자. 2018년 국내 초연 당시 서울에서만 총 매출 258억 원,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유료 객석 점유율도 95%(2500석 기준)로 역대급이다. 쿠자는 상자·보물함을 뜻하는 고대 인도어 코자(KOOZA)에서 유래한 단어다. 보물 같은 공연 쿠자는 트릭스터가 이끄는 숨 막히는 아크로바틱과 화려한 의상, 매혹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마법 같은 세계로 관객을 인도한다.

**佛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글로벌 대흥행 20돌 기념 투어  
다음 달 3~27일 세종문화회관

고난도 퍼포먼스는 물론 위트 넘치는 광대 예술, 웃음과 스릴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쿠자는 서커스 특유의 스펙터클과 재미의 본질을 담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 펑크, 오케스트라 선율, 전통 인도 음악이 어우러진 라이브 음악과 황홀한 비주얼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쿠자는 스우아하고 화려한 공중 액트의 진수인 에어리얼 후프 △1600파운드의 휠로 중력을 거스르는 극한 스틸의 휠 오브 데스 △7.6m 상공에서 아찔한 곡예를 선보일 하이 와이어 △7m 높이에서 인간의 한계와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밸런싱 온 체어 등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투어의 첫 번째 도시였던 홍콩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부산에 이어 서울을 찾는 태양의서커스 쿠자는 여러 팀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연하는 방식이 아닌, 단일팀의 공연이다.

2018년 한국에서 흥행 신화를 기록했던 쿠자가 이번에도 새로운 신기록을 써 내릴 수 있을지.

**가수 크리스토퍼 두 번째 내한**  
미성에 세련된 감성 인기 폭발  
내달 6일 올림픽공원 K스포돔

대사 없이 노래로 전개되는 '송스루' 형식이 특징인 '노트르담 드 파리'는 1998년 프랑스 초연 이후 현재까지 9개 언어로 번역되어 30개국 이상에서 공연되었으며 전 세계 누적 관객 수 1500만 명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 불후의 걸작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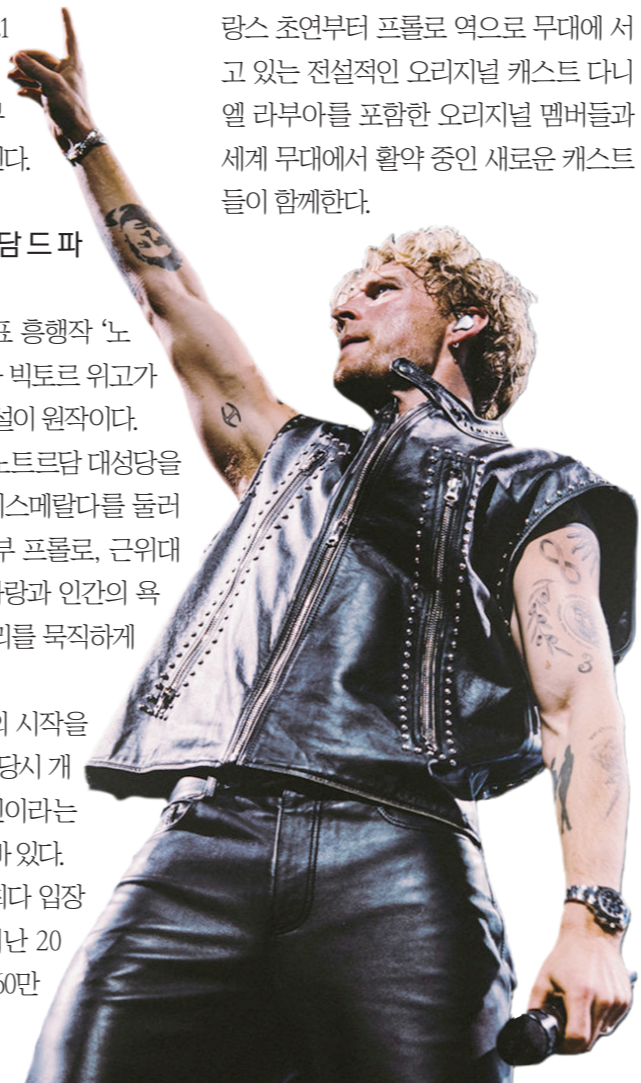
프랑스 뮤지컬의 대표 흥행작 '노트르담 드 파리'는 작가 빅토르 위고가 1831년 집필한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15세기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둘러싼 짝사랑, 신부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의 엇갈린 사랑과 인간의 욕망, 편견,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하게 담아낸다.

프랑스 뮤지컬 돌풍의 시작을 알린 2005년 국내 초연 당시 개막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006년 재연에서는 최다 입장 관객을 갱신했으며 지난 20년간 국내 누적 관객 160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번 20주년 기념 투어에서는 1998년 프랑스 초연부터 프롤로 역으로 무대에 서고 있는 전설적인 오리지널 캐스트 다니엘 라부아를 포함한 오리지널 멤버들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새로운 캐스트들이 함께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공연은 9월3일부터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부터 뮤즈·오아시스까지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해외 뮤지션이 연달아 한국에 상륙한다. 먼저 감미로운 음색과 세련된 감성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토퍼가 내한 공연을 펼친다. 첫 내한 공연 당시 팬들과 함께 한 'Bad'의 땀방 영상은 이번 공연의 열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다수의 히트곡과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로 밴드 팬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해 온 뮤즈가 10년 만에 단독 내한 공연을 갖는다. '글래스톤베리' '코첼라' 등 유수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선정되는 등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을 증명해 온 뮤즈의 록킹 사운드는 9월27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오아시스도 10월2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오아시스의 재결합 이후 첫 월드투어다. 오아시스가 16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국내 팬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임요희 기자 lye@skyedaily.com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토퍼가 내달 6일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에서 내한 공연을 펼친다. 프라이빗

##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